

대한제국시기 보부상의 정치적 진출 배경

이 상 찬

머 리 말

1. 보부상의 1896년 의병 참여
2. 1896년 홍주 의병과 보부상

3. 1896년 환궁운동과 보부상

맺 음 말

머 리 말

대한제국 출범 이후 보부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조직으로 상무사와 황국 협회가 있다. 황국협회는 1898년 7월에 조직된 보부상 단체로서 1898년 11월에 독립협회 회원들을 무력 공격하여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황국협회는 이후 상무사로 발전하였다. 상무사는 전국의 보부상 거의 전부를 끌어들이었고, 상무사에 들지 못하면 행상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

보부상 조직의 발전과 함께 보부상들은 기존의 관리들과는 전혀 다른 기반을 가진 사람들. 예를들어 길영수, 이기동 등을 고위관리로 진출시켰고, 나아가 하의원 설치를 요구함으로써 정치세력화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대한제국 시기 보부상들의 정치세력화는 오래전부터 점차 위상을 강화시켜 온 결과였다.

보부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자료정리를 비롯하여 조직, 활동 등의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밝혀졌다.⁽¹⁾ 그리고, 1866년 병인양요

(1) 조재곤, 1997 「高宗代 襍負商 組織의 변천과 역할」,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헌창, 1992 「朝鮮末期 襍負商과 襍負商團」 『국사관논총』 38

박원선, 1965 『襍負商』 한국연구원

이래 1881년의 임오군변,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농민군 토벌대 등에 보부상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고, 국가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중앙 정치세력과의 연결을 강화해 왔던 사실 역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1896년 의병운동과 보부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만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왜 1896년 의병운동과 보부상의 관계에 주목하지 못하였을까? 지금까지 1896년 의병운동이 척사유림에 의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이해해 왔고 1896년 의병운동의 참여층에 대해 지도부는 양반유생(척사유림), 병사부는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파악해 왔기 때문에 의병의 지도부건 병사부건 보부상이 참여하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그것도 '동원'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1896년 의병운동에 보부상이 병사층의 일부로 참여하여 연락의 임무를 맡았었다는 사실 정도는 지적돼 왔다.⁽²⁾ 그러나 이것은 주력군을 농민군으로 파악하면서 농민군 이외에도 몇몇 계층이 의병에 참여하고 다시 그 가운데 몇 명의 보부상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1896년에 보부상 세력이 강한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난 지역도 있고, 보부상 출신이 의병대장이 되거나, 의병간부가 되는 경우가 발견된다. 의병부대에 들어가 직접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부상이 의병부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실들은 몇 명의 보부상이 의병부대에 들어가 '심부름'이나 하는 정도의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고, 나아가 1896년 의병부대에서 보부상의 역할이 지금까지 이해되어 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컸던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1. 보부상의 1896년 의병 참여

1898년 6월에 발족한 皇國協會가 보부상 단체이고, 보부상들이 독립협회

(2) 김상기, 1997 『韓末義兵研究』 261면 참조.

를 공격하여 해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황국협회의 보부상이나 독립협회를 공격하는 보부상에 1896년 의병 관계자들이 상당수 들어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1896년 강릉 의병장이었던 민용호에 의하면 황국협회 발기인 중에는 허위, 李相天, 李文和, 황보연, 채광묵 등 “復讐疏廳人” 즉 1896년 의병의 지도부가 포함되어 있고, 1898년 10월 大安門 앞에서 독립협회를 공격할 때 또한 보부상이 동원되는데 그 주요 인사 중에 민용호, 심상희, 홍종우, 李基東, 金燦奎, 金弘濟, 宋振玉, 李在華, 羅裕錫, 許薦, 李相天, 黃輔淵 등이 있었다고 한다.⁽³⁾ 이용익까지도 부상의 좌익장이 되어 길영수의 지시를 받아 싸웠다고 한다.⁽⁴⁾ 뿐만 아니라 皇國協會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商務社의 초대 사장은 신기선이었고, 1896년 의병장 중의 한 사람인 민용호는 商務社 평안남도 公事員으로 임명되었다.

이들 중 허위 이상천 황보연 채광묵 민용호 심상희 김홍제 등이 1896년 의병 출신이다. 민용호는 강릉을 근거지로 하여 주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활동한 의병대장이었고, 허위는 1896년 경상도 金山 의병의 주도자였다. 심상희는 여주 의병의 실질적인 지휘자였다. 김홍제는 1896년 9월 남포 의병 주도자이고 이상천,⁽⁵⁾ 황보연, 채광묵 등은 1896년 1월 홍주 의병에 참여하였

(3) 『關東倡義錄』 120-2면.

『독립신문』에 의하면 황국협회 발의인은 원세성 강창희 강원달 이승원 원운 이회철 이회중 김경수 우병예 최용환 이병소 등이었다(『독립신문』 1898년 7월 5일자 잡보, 영인본 『독립신문』 3권 316면). 민용호의 기록은 이와 전혀 다르지만, 민용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복수소청인들의 황국협회 참여 사실이지, 발기인 여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1896년 의병 지도부 출신 인물들이 발기인은 아니더라도, 황국협회에 참여한 것은 사실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4) 『독립신문』 1898년 12월 1일 잡보 리씨소문.

이용익이 길영수보다 권력 서열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잘 남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사는 이용익과 길영수의 상하관계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익이 독립협회를 공격한 보부상의 배후인물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5) 1895년 12월 2일 부여, 홍산, 정산, 대흥 등 4읍의 首倡者들이 홍주 관찰부로 모였다고 하는데 부여에서는 李相麟, 李相天, 李秉承, 鄭濟錫, 李根周, 金正河 등이 왔다고 한다(『乙坎日記』 1895년 12월 2일자 참조). 이상린은 홍주 6의사 중의 한 사람이다.

던 인물들이다. 이윤익은 1896년 함경도 의병의 배후인물로 추정된다.

이들 1896년 의병 지도부가 황국협회에 참여하고, 상무사의 간부가 되었던 것은 자신들이 보부상이거나, 상업세력 또는 보부상과 관련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최소한 척사유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민용호는 지금까지 여흥민씨로서 명성왕후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의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민용호는 명성왕후와 혈연적으로 아주 멀기 때문에 혈연적인 이유로 의병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명성왕후 지지세력에 의해 동원되는 보부상이 아닐까 추정된다.⁽⁶⁾

허위는 증조부가 남쪽지방의 해산물과 서울의 상품을 매매한 후 다시 이 상품들을 다른 지방에 교역하였다고 한다.⁽⁷⁾ 보부상보다 더 큰 규모의 상인이라고 보여지지만, 상업을 통해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해서 지주가 된 가문의 후손이었던 허위는 여타의 선비들과는 다른 기반을 가졌던 것만은 틀림없다.

1896년 의병 지도부에 척사유림과 성격을 달리하는 인사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는 홍주 의병, 노병대 의병, 김하락 의병 등에 보부상이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홍주 의병은 장을 달리하여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노병대 의병과 김하락 의병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896년 4-5월 문경, 연풍, 괴산 등지에서 활동하였던 盧炳大는 負商 班首 鄭在河를 중군장으로 임명하고 있었다. “너는 본시 여러 해 負商頭目이었으니 네가 우리 義陣에 들어오면 우리 義陣의 세력이 반드시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⁸⁾ 중군장은 병력과 군수품을 담당하는 직책으로서 부상 두목을 중군장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은 노병대 의병의 기반이 보부상이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1896년 6월 18일 김하락 부대는 경주성을 공략, 함락시켰다가 6월 22일 대구부와 동래부 병정에게 패배하여 흩어졌는데 의병들이 흩어질 때 수백명이

(6) 이상찬, 1896년 「의병장 민용호의 실체」, 『규장각』 20집 참조.

(7) 박성진, 1991, 「旺山許蔣研究」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6면.

(8) 1896년 7월 4일, 「공주부관찰사 보고서 56호」 『司法稟報』(奎 12178) 9책.

汝是多年負商頭目이라 汝入我陣하면 我勢必大하것기로 以汝로 中軍將하니 ...

모두 보부상 행색으로 변장하고 울산·장기·청송 등지로 도망하였다고 한다.⁽⁹⁾ 보부상으로 변장했으니까 보부상이 김하락 부대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당시 동래부 관찰사였던 池錫永이 보낸 진압군 지휘자는 경주성을 점령하고 있는 김하락 부대의 병력을 300여명으로 보았고 그 중 절반을 포군이라고 하였다.⁽¹⁰⁾ 그렇다면 보부상으로 변장한 것은 포수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백명의 보부상의 복장을 쉽게 구한 것으로 보아 김하락 부대는 보부상과 매우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경주성을 함락시킨 김하락 부대의 주력군이 포군과 보부상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외에도 강원도 지역에서도 보부상이 의병에 들어간 경우가 있고,⁽¹¹⁾ 유인석 의병에도 보부상이 참여하였다고 한다.⁽¹²⁾ 또한 허위, 민용호 등의 의병에 보부상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사실들은 1896년 의병에 상업세력이 주도하고 보부상이 병사로 참여하는 일부 부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896년 의병의 지도부와 병사부에 보부상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아관파천에도 보부상이 대규모로 동원되고 있었다. 아관파천 당일인 1896년 2월 11일 朴定陽과 李允用 등에 의해 보부상 수천명이 서울로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대궐 문전을 비롯한 큰 길에 裸負商 차림의 사람들이 짝 찻었다고 한다.⁽¹³⁾ 보부상들은 종로에서 김홍집의 시체를 향해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시체를 발로 짓이겨서 온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2월 10일 밤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¹⁴⁾

(9) 「동래부관찰사 池錫永 第17號 報告 및 後見奪秩」 『公文編案』(奎 18154) 49책.

匪徒潰散時 皆以裸負商行色으로 變幻하여 或逃蔚山長鬢等地하며 或逃靑松等地하여 ...

(10) 1896년 7월 1일, 「동래부관찰사 지식영 보고서 18호」 『公文編案』 50책.

(11) 朴敏一, 「裸負商 - 商理社 規則」 『강원문화연구』 1990. 12 참조. 민용호 의병인지, 춘천 의병인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12) 김상기, 1997 『韓末義兵研究』 261면 참조.

(13) 1896년 2월 17일, 「親露派 李範晉 등의 陰謀에 관한 報告」 『日本公使館記錄』(국사편찬위원회 번역본) 9책 143-4면.

(14) 1896년 2월 13일, 「조선국 대군주 및 새자궁 노국공사관에 입어한 전말 보고」

아관파천은 1896년 초에 일어났던 의병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었다. 명성왕후 지지세력과 친러파가 중심이 되어 일어난 의병운동이 개화파의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조기에 진압되자,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주도세력이 친러파 명성왕후 지지세력이었고, 친일 개화파 정권의 타도를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이었다. 따라서 아관파천에 보부상을 대규모로 동원하였다면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의병운동에도 보부상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2. 1896년 홍주 의병과 보부상

1) 원홍주 6군 상무사 소속 보부상의 의병 참여

민용호, 김하락, 노병대 의병 외에 보부상과 관련하여서는 1896년 홍주 의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96년 의병이 일어난 지역 중 홍주는 보부상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¹⁵⁾ 이 지역의 보부상은 이미 1850년대부터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색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1896년 홍주 의병에서 보부상으로 눈에 띄는 인물은 朴鴻陽이다. 박홍양은 1891년부터 1904년까지 14년간을 계속해서 원홍주 6군상무사의 都班首를 역임하였다.⁽¹⁶⁾ 1896년에도 그는 도반수였는데 홍주부 관찰사 이승우가 의병

『日本公使館記録』 9책 136-138면.

(15) 1896년 홍주 의병이라고 할 때 홍주는 관찰부를 의미한다. 당시 홍주관찰부에는 홍주 결성 덕산 한산 서천 비인 남포 보령 임천 홍산 서산 해미 당진 면천 태안 대흥 청양 예산 신창 온양 아산 정산 등 22개 군이 소속되었다.

홍주관찰부 지역은 보부상의 상권으로는 다음과 같이 넷으로 나뉜다.

① 원홍주 6군 : 홍주 결성 청양 대흥 보령.

② 芻山 8구 : 모시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부여 홍산 한산 임천 남포 비인 서천 정산.

③ 예산 덕산 면천 당진.

④ 아산 신창 온양 평택.

(16) 민속원, 『보부상자료집 續』. 도반수는 領袖, 領位 다음의 직위였다.

에 끌어들였다. 1896년 1월 16일 홍주부 관찰사 이승우는 각처의 쓸만한 인물로 保寧의 朴鴻陽, 沔川士人 徐相理, 泰安 韓璋履, 水營舊校 卜周默, 安眠 島前中軍 朴東鎮 등 5명을 지목한 후 이들을 불러들이고 있었다.⁽¹⁷⁾ 이들이 의병부대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들 5명은 주로 병력 동원이나 군수품 징발에 관계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894년 농민군 토벌⁽¹⁸⁾ 때 박홍양, 박동진, 한장리 등은 이미 이승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박홍양은 兩湖都巡撫營의 제의에 따라 1894년 12월 5일 韓應俊과 함께 湖西招討使 이승우의 참모관으로 임명되어 농민군 진압에 공헌한 적이 있었다.⁽¹⁹⁾ 박동진은 서산의 갑오의려, 한장리는 태안의 갑오의려였다.⁽²⁰⁾

위의 5명은 홍주 의병 주요관련자 23명에 한 사람도 들어있지 않아서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승우의 배반으로 홍주 의병이 실패로 돌아가자 1896년 1월 19일 박홍양은 박동진 복주목과 함께 홍건을 찾아갔고, 함께 들어가 관찰사를 만나서 다시 한번 상의하자고 하였다고 한다.⁽²¹⁾ 박홍양이 의병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07년의 일이긴 하지만, 1907년 10월 13일 박홍양은 김복한, 李薰榮 등과 함께 보령 주재 日警에게 체포된 적이 있었다.⁽²²⁾ 의병과 관련하여 김복한과 함께 요주의 인물로 주목받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보부상의 도반수가 의병에 “관계하고 있다면 보부상이 의병부대에 조직적

(17) 『乙坎日記』 1895년 12월 2일조.

(18) 1894년 홍주 지역의 농민군 토벌 활동에 대해서는 이이화와 양진석의 논문이 참고된다.

李離和, 1990 「東學農民戰爭에 나타난 儒林의 對應」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碧史李佑成教授停年紀念論叢) 下.

양진석, 1995 「1894년 충청도지역의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 연구』 4

(19) 『고종실록』 1894년 12월 5일조

(20) 『東學黨征討人錄』 「義旅」조. 한장리의 경우 『홍양기사』에서는 韓璋履로, 『동학당정토인록』에는 韓章履로 되어 있다. ‘장’자를 약간 다른 한자를 쓰긴 하였지만, 동일인으로 보인다.

(21) “余(洪樞, 필자)曰 今日之事 胡至於此 莫非中有奇計乎” 余略舉始末言之 曰但當速出 不者必有禍機 鴻陽憤然拍案 曰既往勿說 今欲一翻不患無策 子何不此之圖而坐受其敗乎 請與子入見觀察 再作商議 … 『乙坎日記』 1895년 12월 5일조.

(22) 『洪陽紀事』 『독립운동사자료집』 2, 304면 참조.

으로 동원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홍주 의병 거의 초기에 보부상들이 수십명의 선비들과 함께 홍주성에 들어왔다고 하며,⁽²³⁾ 靑陽군수 鄭寅羲와 함께 싸웠던 李世永은 負商을 거느리고 나갔다고 하였다.⁽²⁴⁾ 또한 거의 전 날 이봉학은 '商賈行旅'로 변장한 수백인을 거느리고 성중에 숨었다고 한다.⁽²⁵⁾

확인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이 외에도 홍주 의병에는 보부상이 상당한 규모로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1894년 농민군 토벌 때 보부상이 동원되었고,⁽²⁶⁾ 1896년 의병 간부 중에 1894년 농민군 토벌대 출신이 많았다⁽²⁷⁾고 한 것으로 보아 의병 병사 역시 농민군 토벌대 출신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1894년 농민군 토벌 때 원홍주 6군 상무사의 영수 이교철⁽²⁸⁾과 도반수 박홍양이 농민군 토벌에 참여하고 있었다. 1894년 박홍양이 호서초토사의 참모관으로 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영수를 역임한 보령군수 李教哲이 농민전쟁 때 이승우와 농민군 토벌에 대해 의논을 하고 보령 향병을 징발하였다.⁽²⁹⁾ 영수 이교철과 도반수 박홍양이 농민군 토벌대 지휘자였다면

(23) 김상기, 1997 『한말의병 연구』 261면.

(24) 使李世永 率負商前往 以應靑陽之兵. 『乙坎日記』 1895년 12월 2일조.

(25) 「洪陽紀事」 『독립운동사자료집』 제2집 「의병항쟁사자료집」 260, 801면 참조.

(26) 『갑오군공록』과 『동학당정토인록』에서 보부상이 농민군 토벌에 참여한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7명에 불과하다. 『동학당정토인록』 「偵探」 조에 前商理局統領 李聖根과 所任 河相奎가 기록되어 있고, 『갑오군공록』에 商理局所任 2명(李敬錫 金壽龍), 外道所任 3명(安景默 河雲起 安景晏)이 '立塘搬運'의 공을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경석과 안경안에 대해 『동학당정토인록』에는 '所任' 등의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동학당정토인록』의 「정탐」조 중 상당수가 보부상으로 생각된다(최소한 前商理局統領 李聖根이하 이태진까지 28명은 보부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의 활동 지역이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1894년 보부상이 농민군 토벌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27) 觀察乃使余出會所 排定部曲 與李鍾應同出 議定將佐 多以甲午應選之人排次 … 『乙坎日記』 1895년 12월 2일조.

(28) 이교철은 1880년에서 1884년까지, 1890년, 1894년에서 1896년까지 9년간을 원홍주 6군 상무사의 領袖를 역임하였다. 민속원, 『보부상 자료집 續』

(29) 이상찬, 1995 「을미의병 지도부의 반농민군 활동」 『규장각』 18집.

이교철에 의해 징발된 향병이 보부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1894년 농민군

원흥주 6군 상무사 소속 보부상이 농민군 토벌대에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박홍양처럼 1894년 농민군 토벌과 1896년 의병에 모두 관여하였다면, 1896년 홍주 의병에도 상당한 규모로 보부상이 동원되지 않았을까?

2) 원흥주 6군 상무사 소속 보부상의 정치적 지향

보부상이 1896년 의병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계기는 일차적으로 1895년 3월 상리국과 임방을 혁파하고 활동을 위축시킨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³⁰⁾ 그러나 홍주 지역 보부상은 상업적인 이해 관계 외에도 보다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중앙의 정치세력과 연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관파천을 주도한 세력은 원래는 의병을 통해 개화파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날짜를 잡아 일시에 봉기하여 경성은 춘천에서, 인천은 충청도로부터, 부산은 경상도 및 강원도 남부로부터, 원산항은 강원도의 반절 부분과 文川 이북에서 내습한다는 방침을 결정해 두고 있었다.⁽³¹⁾ 그리고, 이 계획은 실제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춘천과 경기 동남부 지역 의병이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원산항과 부산항 공격 계획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천을 공격하기로 계획되었던 충청도 지역은 홍주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당시 충청도 지역에서는 홍주 의병이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아마도 인천 공격 계획에 따라 봉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 흥미있는 사실은 홍주 의병 주모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홍주 의병과 관련하여서는 모두 23명이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는데 1896년 4월 7일 홍주 의병 관련자들은 고종의

진압 당시 수백명씩 동원되는 儒兵 儒軍 鄉兵 鄉丁 등이 또한 보부상일 가능성도 있다.

(30) 임방의 혁파와 부활에 대해서는 조재곤과 전우용의 논문 참조.

조재곤, 1993 「한말 근대화 과정에서의 보부상의 조직과 활동」 『白山學報』 제41호

전우용, 1997 「19세기말 - 20세기초 韓人 會社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31) 1896년 2월 8일, 「강원도 춘천부 폭민 봉기 건」 『日本公使館記錄』 10책, 232면.

특명에 의해 체포자 23명이 모두 석방되었다. 아관파천 이후 집권한 정치세력이 홍주 의병에 대해 호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봉기한 다른 의병 부대에 대해 주모자를 처형하거나, 무력진압에 나선 것, 아관파천 직후 곧바로 춘천과 여주, 이천 지역 의병에 대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조칙을 내렸던 것과 비교할 만하였다. 아관파천 주도세력들은 조칙을 통해 춘천 등지의 의병이 1895년 8월 20일의 사변 때문에 일어났다고 규정하고 있었다.⁽³²⁾ 이것은 애초에 네 도시에 대한 공격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친러파 명성왕후 지지세력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즉 춘천, 홍주 등지의 의병이 개화파 정권의 타도와 왕후의 복수를 위한 것이었고, 아관파천 주도세력과의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1896년 홍주 의병은 을미사변을 복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복한이 주도하였지만, 민종식과 연계되어 있었다. 김복한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관직에서 쫓겨난 명성왕후 지지세력이었다고, 민종식과 절친한 사이였다고 한다.⁽³³⁾ 1890년대에 명성왕후 친가에는 단 3명의 후손이 있었는데 민영익, 민종식, 민형식이 그들로서 이들 모두 繼後孫이긴 하였지만, 명성왕후 친가쪽에서는 명성왕후와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인물들이었다. 민종식은 홍주 근처인 정산에 살고 있었다. 또한 명성왕후의 외가가 한산 이씨가였고, 명성왕후의 외사촌이었던 이경직은 을미사변 때 궁내부 대신으로서 명성왕후와 함께 살해되었다.⁽³⁴⁾ 홍주 지역이 을미사변 복수에 앞장설 만한 이유

(32) 詔曰 今此 春川等地에 人民起鬧함은 斷髮한 事를 爲함이 아니라 大抵八月二十日事變에 積憤이 彌中하여 藉端暴發한 줄을 不問하여도 的知할지라 … 『高宗實錄』 1896년 2월 11일 자 및 『詔勅·法律』 (규장각 자료총서 금호시리즈 근대법령편) 52면.

(33) (1906년 민종식 의병과 관련하여) 丹羽賢太郎이 김복한을 문초하였는데 丹羽賢太郎이 “이미 민종식과 더불어 친절히 지낸 적이 10여년이 되었고 또 함께 상소할 것을 의논했은즉 혹시 거의하자는 의논도 했었는가”라고 물었고, 김복한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洪陽紀事』 (『獨立運動史資料集』 第二輯 『義兵抗爭史 資料集』 300-1면). 1906년 민종식 의병과 관련한 문초이기 때문에 대략 1896년경부터 민종식과 김복한이 절친한 사이였다고 볼 수 있다.

(34) 홍주의병이 명성왕후 지지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상찬, 1997, 「1896년 의병과 명성왕후 지지세력의 동향」 『한국문화』 20 참조.

는 충분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개화파 정권은 의병 진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고, 홍주에는 1월 21일 관군이 파견되었다. 관군의 파견과 내부분열로 인해 홍주 의병은 명성왕후 복수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홍주 부근에 거주하는 정치세력들은 개화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을미사변을 복수한다는 목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아관파천에 다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896년 2월 11일 경기도에서는 전원이, 충청도와 황해도에서는 과반수의 보부상이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였는데⁽³⁵⁾ 여기서 말하는 충청도 지역은 앞뒤의 정황으로 보아 홍주와 그 부근 지역이 아닐까 추측된다.

홍주 지역 보부상이 중앙정치세력과 연결되는 고리는 주로 여흥민씨였다고 생각된다. 홍주 지역은 명성왕후 뿐만 아니라 국왕 고종도 일정한 연고를 가지고 있었다. 고종의 큰 외삼촌인 閔泰鎬(민영환을 양자로 들였다)의 집이 예산이고, 할아버지 남연군의 묘가 덕산에 있었다. 국왕의 외가와 왕후의 친가가 모두 여흥민씨였던 것이다. 게다가 명성왕후 친가의 후손이었던 민종식은 고종과의 관계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하였다. 1906년 민종식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 고종으로부터 마패와 돈 10만냥이 내려졌다는 소문도 있었다.⁽³⁶⁾

그렇다면, 1881년에 만들어진 혜상공국의 당상 6명 중에 閔台鎬, 閔泳翊, 閔應植 등 명성왕후의 총애를 받는 여흥민씨 핵심세력이 들어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³⁷⁾ 또한 韓圭稷, 尹泰駿, 李祖淵 등 나머지 혜상공국 당상 3명도 갑신정변 때 살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혜상공국 당상 6명은 모두 명성왕후 세력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본다면 홍주 지역의 여흥민씨 세력은 어떤 정치적 변화를 목표로 하여 보부상을 동원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94년의 농민전쟁은 여흥

(35) 1896년 2월 17일, 「親露派 李範晉 등의 陰謀에 관한 報告」 『日本公使館記錄』 9책 143-4면.

(36) 「義士李容珪傳」(『獨立運動史資料集』 第二輯 「義兵抗爭史 資料集」 수록) 320면 참조.

(37) 閔台鎬, 閔泳翊, 閔應植 등이 혜상공국 당상이었다는 사실은 민속원, 『裸負商資料集』 地 참조.

민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정치적 몰락과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1896년 1월의 의병이나, 2월 11일의 아관파천은 명성왕후의 시해 이후 완전히 정권에서 밀려난 정치세력들이 비상수단을 통해 개화파 정권을 타도하고 다시 집권하려는 것이었는데 홍주 지역의 여흥민씨 역시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부상들은 한때 핵심지배세력이었던 여흥민씨와 결합함으로써 상업에서의 특권을 보장받으려 하였던 것이다.

3. 1896년 환궁운동과 보부상

1) 신기선의 親의병 활동

1899년에 조직된 상무사의 초대 사장은 신기선이었다. 그런데 신기선은 1896년 의병, 특히 충청도 지역의 의병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신기선이 친의병적인 인물이라는 사실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신기선은 2월 27일 南路宣諭使에 임명되었고, 3월 3일에 출발하여 이천의 김하략 부대, 진천, 목천, 홍주, 나주 등지에서 선유활동을 마치고 6월 1일 귀경하였다. 의병해산 조치를 선포하기 위해 2월 20일 崔益鉉이 宣諭大員으로, 2월 27일 신기선이 南路宣諭使로, 이도재가 東路宣諭使로 임명, 파견되었다. 3월 20일에는 이종건이 北路宣諭使로 임명되었다. 선유사가 마치 의병활동을 중지시키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들 4명은 한결 같이 친의병적인 인물들이었다.

崔益鉉은 단발령 공포 직후 포천에서 이미 의병을 일으키려다 체포된 적이 있었고, 2월 25일 의병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려 선유사 임명을 거부하였다.⁽³⁸⁾ 東路宣諭使 이도재는 단발령 공포 직후 가장 먼저 반대상소를 올려 학부대신에서 파면되었고, 강원도 지역 의병을 선유하기 위해 파견

(38) 『國譯勉菴集』 101-2면 및 『上疏原本』(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3책 수록) 173-80면 참조.

되었는데 홍재구와 비밀 약속을 하여 홍재구의 환궁운동을 은근히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³⁹⁾ 특히 5월 24일 경병이 민용호 부대를 공격했을 때 경병을 뒤따라 들어와 “今日 京郷의 병사는 聖上의 赤子인데 갑자기 경병으로 (의병을) 공격할 수 있는가”라고 강릉관찰사를 힐책하고 불쾌해 하며 그날로 돌아갔다고 한다.⁽⁴⁰⁾ 이것은 이도재가 의병을 해산시키려 나왔다가보다는 관군을 따라 다니며 의병에 대한 공격을 늦춤으로써 관군으로부터 의병을 보호하기 위해 나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李鍾健은 武班의 집에 태어나 고종과 명성왕후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로 함경도 의병들과 ‘같은 주의자’로 알려져 있었다.⁽⁴¹⁾ 신기선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실제로 신기선은 4월 초 홍주 관찰부 지역에 도착하여 청양, 홍주, 보령, 남포, 서천, 홍산, 부여 등지를 돈 후 홍주부 의병의 정당함을 밝히고 김복한, 이설 등의 석방을 건의하는 글을 올렸다.⁽⁴²⁾

결국 선유사, 특히 崔益鉉, 신기선, 이도재, 이종건 등은 의병운동의 핵심 인물이거나 의병과 친근한 인물들로서 의병을 해산시키기 위해 이들을 파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신기선, 이도재, 이종건 등은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1894년 8월 22일 신기선과 이도재는 우범선 등과 함께 군국기무처 의원에 임명되었지만 둘 다 군국기무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도재와 신기선은 이때부터 이미 개화파에 대해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기선이 1896년 10월 학부대신에서 물러나 고향인 木川으로 내려가자 이종건 역시 고립되어 세력을 잃게 되었고 민영환과의 불화로 인해 11월 23일 끝내 경무사에서 해임되었다⁽⁴³⁾는 사실에서 이종건이 신기선과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기선은 갑신정변에 연루되었고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 다음날인 1894년 6월 22일 이도재, 윤응렬 등과 함께 유배에서 풀려난 까닭에 개화파로 분류

(39) 『關東倡義錄』 47면 참조.

(40) 『關東倡義錄』 52-3면.

(41) 1896년 6월 20일, 「新警務使의 胎生 등 의견」 『日本公使館記錄』 11책, 59면.

1896년 4월 29일, 「노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폭도의 태도」 ‘별지 3. 함경도 북부 연안 개황’, 『日本公使館記錄』 8책, 270면.

(42) 「奉使日記」 『申箕善全集』(亞細亞文化社) 하.

(43) 1896년 11월 27일, 「임면 일속」 『日本公使館記錄』 11책, 101면.

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미 1894년부터 전혀 다른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⁴⁴⁾ 신기선은 근국기무처 의원으로 임명되었지만,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1894년 10월 3일에는 排日상소를 올려 경복궁 앞의 일본군 철수, 일본의 내정간섭 불가, 일본군과의 일전불사 등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는 맨 처음으로 일본군의 철수, 일본군과의 일전을 주장한 것이다.⁽⁴⁵⁾ 이미 개화당에서 儒學 부흥론자로 바뀌어 있었다.⁽⁴⁶⁾

신기선은 1895년 5월 10일 학부대신에 임명되었는데 이번에도 5월 20일, 윤 5월 6일, 6월 20일 세번에 걸쳐 상소를 올렸다. 상소의 내용은 주로 각종 제도의 복구에 관한 것이었고, 윤 5월 6일의 상소에서는 “동방문물의 옛 제도를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각국의 간편한 제도를 참작하여 옛날과 지금이 서로 참작되고 원칙과 임기응변이 알맞게 되도록 할 것”을 주장하여 이미 ‘舊本新參’의 내용을 말하고 있었다.⁽⁴⁷⁾

南路宣諭使로 임명되어 선유활동 중이던 1896년 3월 16일에 신기선은 학부대신에 임명되었다. 신기선은 선유활동을 마치고 6월 1일 귀경하였는데 귀경과 동시에 학부대신을 사직하는 상소를 올려 단발을 비난하고, 양력폐지와 음력 사용, 국문폐지와 한문사용, 내각대신의 국정 의론과 재가 요청이 월권이며 君權을 침해하는 것, 관립학교의 복제는 종래의 한복을 입히도록 하고 양복을 착용하지 말 것 등 다섯 가지를 주장하였다.⁽⁴⁸⁾

신기선의 일련의 상소 및 훈령은 독립신문에서 집중적인 비판이 가해졌다. “소위 의병인지 동학과 상종이 많아 아마 그 사람들 의견과 같아진 것” “국체를 손상하고 간신이 된 독립국을 도로 청국 속국을 만들자는 경영”

(44) 신기선의 초기사상(동도서기론) 및 개화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권오영, 「申箕善의 東道西器論研究」 『淸溪史學』 제 1집 참조.

(45) 이보다 약간 앞선 1894년 7월 21일 이남규와 이설이 상소를 올려 일본 침략의 부당함을 말하기는 하였지만 신기선만큼 강력한 논조는 아니었다.

(46) 신기선이 개화당에서 유림의 신망을 받는 인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미 「義兵抗爭史」(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독립운동사』 1) 249면에서 지적한 바 있다.

(47) 상소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四曰 稍存東方文物之舊 參以各國簡便之制 使古今相酌 經權得中” 『上疏原本』(서울대 도서관 『고문서』 3) 13면.

(48) 1896년 6월 11일, 「학부대신 신기선 상소 건」 『日本公使館記錄』 11책, 58면.

“나라에 조금치도 유조하지 안 할 터이니 속히 면직을 당할수록 나라가 진보할 터이요 동학인지 의병같은 무리도 개과천선할 듯하다” “의병의 하는 말” 등 신기선을 주로 의병과 관련지어 비판하고 있었다.⁽⁴⁹⁾

2) 배양운동의 전개

또한 신기선은 1896년에 전개된 환궁운동과 배양운동의 중심인물이었다. 아관파천으로 고종이 외국 공사관에 머물게 되자 고종의 환궁을 주장하는 상소가 올려지고, 고종을 강제로 환궁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환궁운동은 고종을 경복궁으로 환절시키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2월 11일 이후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범진을 퇴진시킬 수 있었고, 이범진의 퇴진 이후 환궁운동은 점차 英美派 배척운동으로 발전하였는데, 신기선은 바로 이러한 환궁운동과 배양운동의 중심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환궁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경기도 광주 의병이 1896년 2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남한산성을 공격, 점령하면서부터였다. 3월 22일에는 나주 의병이 봉기하여 고종의 환절을 요구하였다. 1896년 5월부터 6월 초 사이에 홍재구와 민용호가 강원도 지역에서 환궁운동을 전개하였고, 주도세력을 알 수는 없지만, 청주와 이천 지역에서도 대규모의 의병활동이 있었다.⁽⁵⁰⁾

1896년 환궁운동을 전개한 중심 인물로는 金炳始, 閔泳駿, 민영환, 대원군, 신기선 등이 있다. 이들은 상소운동을 전개하거나, 지방의 의병을 조종하여 무력시위를 하였는데 대체로 김병시는 광주와 이천 의병, 민영준은 민용호 의병, 신기선은 홍주 지역의 의병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기선은 또한 1896년에 전개된 排洋운동의 중심인물이었다. 韓圭高, 沈相薰, 李鍾健, 申箕善 등은 이범진 퇴진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범진 퇴진 이후에는 일본파 및 미국파 등을 제거하기 위해 ‘排洋운동’을 전개하였다.

(49) 『독립신문』 1896년 6월 4, 9, 11, 13, 18일자.

(50) 1896년 5월말 6월초 사이에 청주에는 각처의 의병 1만여명이 몰려들어 이를 진압하기 위해 관군이 파견되었고, 그 외중에서 화양서원이 불타버렸다. 같은 시기 이천에서도 의병과 관군이 충돌하여 관청건물과 민가 수백호가 불타버렸다. 이렇게 커다란 사건이지만, 의병운동사에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7월 9일 서울의 鄭惺愚는 상소를 올려 1884년, 1894년 및 1895년의 變事에 간여한 자를 처벌하도록 요청하였다.⁽⁵¹⁾ 서재필, 박정양, 조병직, 이윤용, 안경수, 김가진 등 종전에 거론되지 않던 인물들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미국파와 아관파천 주도세력의 일부였다. 이에 대해 서재필, 박정양, 조병직, 이윤용, 안경수, 김가진 등 6명은 고등재판소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독립신문사는 정성우가 독립신문을 비난하였다고 명예회복을 위하여 기소했는데, 2천圓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였다.⁽⁵²⁾ 7월 18일 정성우는 패소하여 명예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받았고 형사 재판으로 회부되었다.⁽⁵³⁾

8월 4일에는 前府使 李時宇⁽⁵⁴⁾ 등 100여명으로 하여금 還宮 상소를 올리게 하였다. 수일동안 궁궐 앞에 엎드려 待命하고 있다가 批旨를 받고 철수하였는데 8일 경무청에 체포되었고 그 다음날 고등재판소에서 심문을 받았다. 석방된 李時宇는 還宮운동자의 일파인 金洪濟와 함께 다시 600여명을 모집하였다고 한다. 이시우와 김홍제를 사주한 인사는 신기선, 洪鍾宇, 金福漢 등이었다고 한다.⁽⁵⁵⁾

8월에는 洪顯哲, 尹履炳과 金洪濟, 李世鎮 등에 의한 세 차례의 고변이 있었다. 일본파, 대원군파, 박영효당으로 지목되는 50여명을 공격하는 것이었다.⁽⁵⁶⁾ 그러나, 유세남 등 18명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0월 9일 무죄방면되었고 대신 고발인들이 誣告罪로 처벌받았다.⁽⁵⁷⁾ 이 사건의 주모자는 신기

(51) 처벌 대상으로는 徐載弼, 金嘉鎮, 安嗣壽, 朴定陽, 趙秉稷, 李允用 및 그 일족, 金允植, 故魚允中, 故金弘集, 兪吉濬, 鄭秉夏, 趙義淵, 權滌鎮, 李斗璜, 禹範善, 李範來, 李龍鎬, 張博 등이 거론되었다.

(52) 『高宗實錄』 1896년 7월 9일.

1896년 7월 11일, 「교통일반」 『日本公使館記錄』 11책, 69면.

(53) 1896년 7월 20일, 「정성우 피고 민사소송 패소 건」 및 1896년 7월 25일, 「보고제 6호」 『日本公使館記錄』 10책 163면, 11책 74면.

(54) 홍건의 「홍양기사」 중 이시우가 보고한 군공자 명단에 義兵將 李時宇가 있다. 이에 의하면 이시우는 병력과 군사비를 공급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55) 『高宗實錄』 1896년 8월 4일조.

1896년 8월 15일, 「잡건」 『日本公使館記錄』 11책, 84면.

(56)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劉世南, 李滄遠, 李鍾一, 兪鶴柱, 洪在舜, 趙東升, 金春熙, 玄嘆運, 具完善, 鄭鳳林, 李運承, 柳志淵. 『독립신문』 1896년 10월 15, 17일 논설.

선, 이재순, 이종건 등이었다. 모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고종에게 알리고 일본과는 물론 미국과까지도 배제하려 한 사건이었다.⁽⁵⁸⁾

1896년 9월 藍浦에서는 李世永, 黃載顯, 李寬, 金弘濟 등이 주도하는 의병이 일어났다가 곧 패했다. 1896년 9월 藍浦 의병의 주모자들은 모두 1896년 1월 16일의 홍주 의병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었다. 김홍제는 1896년 1월의 홍주 의병에 참여하였고 다시 음력 정월(2-3월)에 선비들을 모아 장두로 남포군에 돌입하였다가 패하여 서울로 도망하였다. 복합 상소를 계획하였고 “경향에 난민을 모아 서양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을 물리치고 내각 관원들을 개화당이라 하여 쳐 없애려” 하였던 인물이었다. 이세영은 1월 16일의 홍주 의병에 참여하였고, 홍주 의병 패배 후 홍산에서 별도의 義陣을 구성하고 있었다. 8월에는 紳士들과 함께 환어를 요청하는 伏閣상소를 올렸다고 한다. 또한 이 사건에 관여한 이세진이라는 인물은 1895년 10월 11일의 춘생문 사건 때 일을 맡았던 사람으로 춘생문 사건 실패 이후 홍주 지역으로 내려가 있다가 1896년 1월의 홍주 의병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중앙의 신기선, 이종건, 이재순, 홍종우, 김복한 등과 연결되어 있었고, 김홍제·이세진·윤리병 등이 중간 고리 역할을 하였다. 1896년 9월 봉기 이전에 환어를 위한 복합상소, 역적 처단을 요구하는 상소 등을 올렸으나 상소자 및 김홍제·이세진·윤리병 등이 처벌을 받게 되자 의병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환공운동과 배양운동의 핵심이었던 신기선은 학문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려고 노력하였다. 신기선은 교과서를 「士民必知」로 하라고 훈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부 편집국을 통해 『儒學經緯』⁽⁵⁹⁾라는 공립학교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몇 년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이 책은 “漢學者派의 근거없는 서술이 많고” “예수교를 비난하고, 기타 외국을 경시, 모욕한 문구가 가끔 있어서” 외국인의 물의를 일으켰다. 프랑스 대리공사는 공사회의를 열어 배외적

(57) 『高宗實錄』 1896년 10월 17일.

1896년 8월 14일, 「민비사해 사건 그후의 조선 政情 건」 『日本公使館記錄』 8책 168면.

1896년 10월 15일, 31일 「잡건」 『日本公使館記錄』 11책 96, 98면.

(58) 1896년 8월 21일, 「조선 내각원 일부의 隱謀에 의한 포박사건 보고」 『日本公使館記錄』 10책, 171면.

(59) 『儒學經緯』 (奎 No. 5912).

인 문서에 관한 처치를 토의할 것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儒學經緯』가 외교문제로까지 번져 각국 공사가 연합항의를 제기하려는 김새가 보이자 조선 정부는 원본을 없애버리고, 발매를 금지하는 동시에 10월 2일 신기선을 학부대신에서 면직시켰다.⁽⁶⁰⁾ 학부대신을 면직당한 신기선은 10월 4일 고향인 목천으로 내려갔다. 외국의 외교관들이 『유학경위』를 문제삼아 신기선을 면직하도록 강요하였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신기선이 배양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성우 사건 이후 이시우 상소, 일련의 고변 사건, 남포 의병 등의 사태가 모두 윤리병, 김홍제, 이세진 등과 관련되어 있었고 한규설, 심상훈, 이종건, 신기선, 이재순, 홍종우, 김복한 등 중앙의 정치인들이 그 배후였다. 이들은 배양운동을 통해 서서히 미국파와 독립협회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경복궁으로 還御시키려는 환궁 운동이 전개되면서 환궁운동 세력과 집권세력이 대립하게 되는데 고종의 경복궁으로의 환궐은 곧 친러파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였으므로 친러파 정권은 환궁운동을 전개하는 의병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집권세력이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환궁운동은 반러적 경향을 띠지 않을 수 없었고, 排日的 성향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반러적 경향을 띠게 됨으로써 환궁운동의 대외적 지향은 「反露排日」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 배양운동 단계에 이르러서는 러시아파만이 아니라 英美派마저도 배척하려고 하였으므로 이제 반침략 운동, 反帝國主義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었다.

1896년 홍주 의병과 그 이후 전개된 환궁운동과 배양운동은 관련인물이 거의 대부분 중복되고 있었다. 또한 관련인물 중 상당수는 황국협회와 상무사에 관련되어 있었다. 앞에서 홍주 지역의 보부상이 1896년 의병에 동원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본다면 환궁운동이나 배양운동, 1898년 독립협회 공격 등에 홍주 지역의 보부상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신기선이 초대 상무사의 사장으로 임명되는 이유도 그가 홍주 지

(60) 1896년 10월 15일, 「任免一束」 및 1896년 10월 21일, 「유학경위의 폐간 및 학부대신의 진퇴에 관한 왕복 문서 발송 건」 『日本公使館記録』 9책 230-1면, 11책 95-6면.

역의 보부상과 일정하게 연계되어 있었고, 1896년부터 1898년까지의 정치적 변화에 홍주 지역 보부상들이 기여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맺 음 말

보부상 조직으로 알려진 황국협회와 상무사에 1896년 의병 출신 인물이 상당수 들어가 있는 점에 주목하여 1896년 의병과 보부상의 관계를 추적해 보았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보부상 출신이 의병간부가 되는 경우와 보부상을 병력으로 동원하는 일부 의병부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보부상 세력이 강했던 홍주 의병은 원홍주 6군 상무사의 도반수 박홍양이 의병에 참여하고 있었고, 보부상이 병력으로 동원되고 있었다.

몇몇 사례에 지나지 않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1896년 의병 지도부와 병사부에 보부상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고, 따라서 1896년 의병 참여층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부상은 의병운동, 아관파천, 환궁운동, 배양운동 등 1896년의 일련의 정치적 변화와 1898년 독립협회 공격 등의 사건에 모두 동원되고 있었다. 이들 일련의 사건들은 중앙의 정치세력에 의해 계획되고, 1896년 의병 지도부로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 중앙의 정치세력과 지방(특히 홍주 지역)의 보부상을 연결하는 중간역할을 하여 보부상들을 행동대원으로 동원하였던 것이다. 중앙의 정치세력은 시기에 따라 다소 성격을 달리하긴 하지만, 개화파에 반대하는 보수세력으로서 명성왕후와 국왕 지지세력들이었다. 다만 명성왕후 지지세력에는 친러개화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1896년 2월 11일 이전의 의병운동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아관파천 이후에는 집권세력으로서 오히려 의병을 진압하는 쪽이었다.

몇 명이 의병부대에 들어가 '심부름'이나 하는 정도의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라 보부상들이 보다 조직적으로 의병부대에 들어갔다는 것은 1896년 의병부대에서 보부상의 역할이 지금까지 이해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훨씬 더 컸다는 것, 나아가 자기들만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보부상이 참여한 의병활동이 친일 개화파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하였고, 이범진 등 친러파 정치세력을 축출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경운궁으로 고종을 옮겨서 대한제국을 성립시키는 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이들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였고, 국왕의 친위세력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보부상들이 처음부터 목숨을 건 위험한 일에 나서게 되었던 것은 개화파가 주도하는 개혁에 의해 보부상 조직이 혁파되어 정치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몰락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보부상 조직을 다시 재건하고 특권상인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려는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주 지역의 보부상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비교적 일찍부터 왕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홍주 지역은 고종의 외가, 명성왕후 친가의 방계와 외가라는 연고를 가진 지역이었다. 특히 고종의 외가와 명성왕후의 친가는 모두 여흥민씨였다. 여기에서 이 지역의 여흥민씨와 보부상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추적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을미사변을 복수하기 위한 의병활동과 아관파천 등의 정치적 사건에 보부상이 동원되었다는 것으로부터 이들이 고종의 외가나 명성왕후 친가의 방계 집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하였다.

앞으로 홍주 지역의 여흥민씨가 보부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면 그것은 여흥민씨의 경제적 기반을 규명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고,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홍주 지역의 보부상이 왕실의 친위세력으로 자리잡는 이유가 분명해질 것이다. 1870년대 이후 정치적으로 급부상하여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로 민승호, 민점호, 민영환, 민영찬, 민두호 영휘 부자, 민관호 영달 부자, 민영익 등을 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들 여흥민씨는 주로 삼방파(閔蕃重·鼎重·維重)의 후손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삼방파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민승호의 할아버지 때 삼방파 밖에서 민유중의 후손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방파처럼 정치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가문은 아니었다. 삼방파와는 정치경제적으로 기반을 달리하였던 것인데,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같은 여흥민씨 내에서 삼방파와 먼저 손을 잡고, 나중에 전주 이씨와의 혼인을 통해 정권까지 장악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삼방파와 손을 잡고, 전주 이씨와 혼인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혹시 보부상 세력이 그 기반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상업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한 정치세력이라면 성리학적인 기반을 가진 정치세력(전통적인 봉건지배세력)과는 다른 성격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 여흥민씨에 대해 우리는 보통 '수구파'라는 표현을 쓴다. 수구파라고 불리는 이 시기의 여흥민씨들이 혹시 상업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하였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이전의 봉건지배세력들보다는 더 진보적인 세력이 아닐까?

(필자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학예연구사)

